명덕설에 대한 의문

김원행과 석실서원

앞서 잠깐 소개하였지만,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은 호가 미호(渼湖)이며 당숙인 김숭겸(金崇謙, 1682~1700)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평생 벼슬하지 않고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강학 활동으로 이름난 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는데, 박윤원(朴胤源, 1734~1799)·김이안(金履安, 1722~1791, 아들)·홍대용(洪大容, 1731~1783)·황윤석(黃胤錫, 1729~1791)·오윤상(吳允常, 1746~1783) 등이 있다. 문집에는 『미호집』이 있다. 인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율곡학 프로젝트' 「율곡학 인물」에 자세하다.

김원행이 강학한 곳은 대체로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이다. 이 서원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상용(金尙容)과 김상헌(金尙憲) 형제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663년에 석실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1697에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이단상(李端相), 1710에 김창협(金昌協)을 추가 배향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김원행이 강학할 당시는 이미 할아버지 김창협이 배향한 뒤였으므로, 그의 학덕을 비롯하여 집안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많은 문인 가운데서 오윤상-오희상-유신환-서응순에 이르는 학맥과 박윤원-홍직필-임헌회-전우에 이르는 학맥이 있음을 본다면, 그의 학문적 영향력이 조선 후기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명덕(明德)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그가 남긴 『미호집(渼湖集)』 「잡저(雜著)·명덕설의문(明德說疑問)」(1737)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까지 논쟁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명덕(明德)'에 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물성동이논쟁과도 관련이 있고 조선 후기 심설논쟁(心說論爭)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대학』의 첫머리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애(새롭게)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라는 말에 등장한다. 여기서 밝힌다는 명덕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의문이다. 물론 주희가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서 텅 비고 영험하고 어둡지 않아 많은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한다."라고 주석했어도, 성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범주에 놓고 볼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텅 비고 영험하다'라거나 '만사에 응한다.'라는 말에서는 심(心)인 마음을 일컫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이치를 갖추었다'라는 말에서 보면 이치 곧 인간에 있어서 본성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문장 전체를 보면 리(본성)와 기(심)를 합쳐 말한 것 같기도 하다.

이는 조선에서 사단칠정 논쟁이나 인물성동이논쟁처럼 주희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에 조선에서 그 점을 더 파고 들어가 분석하여 논쟁하는 일과 똑같은 주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조선 후기의 심설 논쟁의 주제가 되는데, 주된 이론 근거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는 심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심을 리로 보는 관점이며, 셋째는 심을 기로 보는 관점이다.

바로 김원행의 이 의문은 그 서막이라 하겠다. 달리 말하면 적어도 이 당시 학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거리였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말한 관점을 그가 이 글에서 고스란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관점별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겠다.

명덕은 본성인가?

김원행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그 의문을 종류별로 요약해 진술하고 있다. 곧 명덕을 본성으로 말한 것도 있고, 심으로 말한 것도 있고, 심과 성을 합하여 말한 것도 있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는 여기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심을 성으로 본다는 것은 심을 리로 본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고, 심과 성을 합하여 말한 것은 심과 리를 합해서 본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자 여기서 일단 명덕이 본성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성즉리의 논리에 따라 본성은 곧바로 리이다. 리이므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다 같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맹자 이후로 유가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주희 성리학에서 볼 때도 본성이 리이므로 모든 사물에 부여된 리는 각자 갖추어진 태극으로서 같게 되며 자연히 사람과 물건의 본성은 같게 된다. 본성의 같은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그렇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궁리와 격물치지가 있는데 굳이 '명덕을 밝힌다.'라는 말은 궁색해지고 군더더기가 된다. '밝힌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발휘되지 않아서 밝힌다는 뜻이니, 그 말 자체가 성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성인은 스스로 밝거나 잘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원행의 의문도 그런 것이 아닐지 점쳐본다.

명덕은 기인가?

명덕을 기로 본다면, 만물이 다 달라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다르다는 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김원행은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기는 만물마다 다 다르지만, 만약 똑같이 명덕이라고 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탁하고 잡된 기를 타고난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이 텅 비고 영험하여 사물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명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주희의 명덕에 대한 정의(定義)를 두고 반문한 말이다. 그러니까 기를 두고 말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 명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심의 기와 기품(氣稟)의 기는 같은지 다른지 반문한다. 일반적으로 심의 기는 마음이라는 기, 기품의 기는 타고난 성품의 기이다. 이에 대해 같음과 다름의 방면에서 다시 질문한다.

우선 같다고 한다면, 기가 어두우면 심도 어둡고 기가 결핍되면 심도 결핍되어 애당초 심과 기에 구분이 없게 된다. 주희의 정의(定義)는 심을 위주로 말한 듯한데, 또 다른 곳에서 "기품에 구애된다."라고 한 말은 어째서 그런가 하고, 기가 기를 구속하는 것은 입으로 입을 깨무는 것과 유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주희는 또 "부여받은 기에는 편중됨이 없을 수 없으니, 나무 기운을 많이 얻으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늘 많지만,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사양지심(辭讓之心)과 시비지심(是非之心)은 막혀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쇠 기운을 많이 받으면 수오지심은 늘 많아도 측은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은 막혀서 나오지 못하게 되며, 물기운과 불기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측은지심과 수오지심도 부여받은 기에 따라 나오는 데 차이가 있으니, 심과 부여받은 기가 이미 확연히 다른 것이라면 또 어째서 이렇게 관련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말에서 그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 곧 누가 "주자가 '심이란 기의 신령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에 따른다면 심은 타고 난 기 가운데 신령한 것으로 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신령스러

운 것'이라고 한다면 타고 난 기 가운데 거칠거나 나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는 어둡지만 심은 절로 밝고, 기는 결핍되지만 심은 절로 충분하다."라는 말에 대서는 그럴듯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기를 부여받은 사물인데 또 부여받은 기에 따라 어둡거나 결핍되지 않아 한편으론 밝게 통하고 한편으론 국한되는 일이 거의 리와 기처럼 구분되는 결과는 왜 그런지 반문한다. 더 나아가서 심이란 것이 이미 이러하다면 주희가 이른바 "심에는 선악이 있다."라고 한 말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명덕을 심으로 보아 기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원리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본성과 정을 거느린다.'라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말했으니, '거느린다'라는 말에 착안하여 기라고 본 것 같다.

명덕은 본성과 심이 합해진 것인가?

이제 세 번째 의문, 곧 명덕은 심과 본성을 합해서 말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다. 우선 리의 관점에서는 성인과 보통 사람이 같으나 기의 관점에서는 다르니, 같은 점이 절반이고 다른 점이 절반이어서 결국은 다른 것이 된다고 한다. 다른 것이 된다는 말은 명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이다.

그는 더 나아가 그렇게 합쳐진 것이라면 심과 성 사이에 주객의 구분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다시 말하면 주희 성리학에서 심과 본성과 정의 관계를 말할 때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라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의 논리를 말하는데, 그의 질문대로 심과 성이 합쳐 하나라면 주객의 구분이 있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사실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서 텅 비고 영험하고 어둡지 않아 많은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한다."라는 주희의 정의를 보면 명덕을 심으로 정의한 것이 분명하다. 그가 명덕이 성인가 기인가를 따지는 문제는 심이라는 개념 규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심통성정과 함께 심구중리(心具衆理)의 논리 때문이다.

여기서 명덕이 기이냐 하는 문제는 명덕이 성을 제외한 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명덕이 본성이냐 하는 문제는 기를 제외하고 리의 관점에서만 명덕이냐고 묻는 것이며, 본성과 심이 합해진 것이냐의 질문은 기인 심이 본성과 합해진, 곧 리와 기를 합쳐서 명덕이라고 부르느냐의 질문이다. 이것을 이기론으로 더 단순화하면 명덕이란 리를 말하냐 기를 말하냐 아니면 리와 기를 합쳐 말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심이 기라는 점은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김원행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래 고민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특히 스승 이재(李縡)에게 또 친구들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이 마치 철벽(鐵壁)이 앞에 있는데 뚫을수록 더 단단하여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았다고 전한다. 이 말은 본인의 이해력 부족도 있지만, 설명해 주는 스승이나 친구들 역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 한원진 등이 이 문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쳤고, 의론만 분분하여 귀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없었고 필연적으로 후대에 본격적인 논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명덕설과 심설논쟁

명덕설은 송시열을 주축으로 한 노론계 학자들이 주자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성리학의 주제로 주목받게 된다. 그 까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희가 명덕의 정의를 심 혹은 성 한 가지로 확정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호학파의 종장

인 이이(李珥) 역시 심성의 총명이라고만 설명할 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마다 매우 다양한 해석을 했다.

낙학(洛學)은 대체로 이것을 심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심의 역할에 맞추어 전개한다. 김창협(金昌協)의 명덕 해석은 성을 갖추고 정으로 드러내는 심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 심 그 자체의 고유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다. 그것은 허령불매한 지각 능력이다. 곧 주희가 말한 '텅 비고 영험하고 어둡지 않아 만사에 응한다.'라는 그 부분이다. 이는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주체인 심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 결과이다. 어쩌면 율곡 이이의 입지(立志) 사상이 도덕 실천의 동력을 심의 의지에서 찾으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김원행의 이 '명덕설에 대한 의문'은 그가 아직 어느 쪽에도 찬성할 수 없었던 태도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낙학의 명덕설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심성의 문제에서 리기론적 해석으로 외연이 확대되는데, 이는 당시 기호학계에서 심을 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홍직필(洪直弼)과 전우(田愚)는 당시 화서 학파와 명덕에 관한 논쟁을 주도하면서 김창협이 제시한 명덕설을 계승함과 동시에 명덕을 기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화서 학파의 유중교(柳重敎, 1832~1893)와 전우는 1873년부터 14년간에 걸쳐 서신으로 논변을 펼쳤다. 전우는 심성론에서 그런 전통을 이어 '성은 곧 리이고, 심은 기이다.'라는 논리를 고수하였고, 여기서 이 논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이의 '리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다.'라는 리무위기유위(理無爲, 氣有爲)라고 하는 논리이다. 이것은 '성은 곧 리이고, 심은 기이다.'라는 명제와 결합하여, '성은 작용이 없고, 심은 작용이 있다.'라는 성무위심유위(性無爲, 氣有爲)의 논리를 내세웠다.

전우가 생각한 심에는 지각 작용과 허령(虛靈)의 모습이 있으므로 기라 하고, 성은 순수하게 선한 리이지만, 심은 본래 선한 기라고 하였다. 본래 선하다는 의미는 순수하게 선한 성과 달리 심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변성을 말한 것이며, 지각과 허령이라고 하는 의식의 작용과 가변성은 전우가 심을 기라고 규정하는 데 절대적 근거가 되었다.

아무튼 낙학계 명덕설은 심론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전개된다. 낙론계는 이처럼 도덕 행위의 주체인 심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이의 리무위(理無爲), 기유위(氣有爲)의 이기 관계에 따라서 성무위(性無爲), 심유위(心有爲)의 심성 관계가 제시됨으로써 무위한 성은 오직 유위한 심에 의해 실현될 수 있기에 도덕 본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심은 도덕의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덕이 무엇이냐는 점은 결국 각자의 해석에 달린 문제였다.

참고 문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유지웅,「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왜 심인가?-」,『유학연구』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